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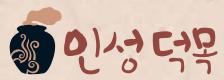
풍자와 해학으로 엮은 이야기

제2회  
신한 새싹 만화상  
은상  
수상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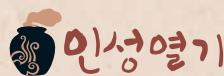


글 장선혜 그림 윤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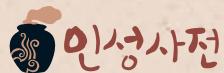


# 존중



난 너희들을 존중해.  
너희들은 내가 바느질할  
때에 꼭 필요하단다.

주부인이 우리가  
쓸모없다고 말한 게  
서운해서 흉을 본 거예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해요.



이성전래 사자성어 (四字成語)

‘갑론을박’



# 甲 論 乙 駁

첫째 갑

논할 론

둘째 을

논박할 박

‘서로 어떤 의견, 주장 등을 말하고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 글 | 장선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사 하늘땅의 대표로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수학 나라 이야기쟁이』, 『과일 사세요』 등이 있으며, 『탄탄 수학동화』, 『꼬마 과학자』,  
『똑똑한 사회씨』, 『미술관에 간 꼬마 피카소』 등 여러 가지 시리즈를 기획하고 쓰고 있습니다.

## 그림 | 윤정주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책에서 개성 있는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2회 신한 새싹 만화상 은상, 1998년 한국출판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동화책 『짜장면 불어요!』, 『신기한 시간표』, 『콩나물 병정의 모험』, 그림책 『연이네 설맞이』,  
『아카시아 파마』, 『말놀이 동시집』, 『돈 잔치 소동』, 『천하무적 조선 소방관』, 『키키의 빨강 팬티 노랑 팬티』,  
『봉봉 마녀의 꼬치꼬치 떡꼬치』 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 감수 | 조재윤(현 서울 수암 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박장희(현 서울 수암 초등학교 교감)

이선주(현 서울 수락 초등학교 교사)

김수미(현 서울 을지 초등학교 교사)



## 02 바느질 일곱 친구

글 장선혜 | 그림 윤정주 | 감수 조재윤 · 박장희 · 이선주 · 김수미 | 기획 · 개발 · 편집 · 디자인 아람 · 하늘땅 | 사진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펴낸곳 도서출판 아람 | 펴낸이 이병수 |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71번길 17-73 | 고객센터 1577-4521 | 팩스 02-412-3382  
홈페이지 [www.arambook.net](http://www.arambook.net) | 출판등록 제2008-4 | ISBN 979-11-282-1284-0 979-11-282-1282-6(세트)

© 도서출판 아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눈을 편안하게 해 주는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풍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 책 모서리가 날카로워 다칠 수 있으니 사람을 향해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 종이에 베이거나 굽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글 장선혜 그림 윤정주



아람

바느질 솜씨로 동네방네 소문난 주 부인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지을 때는

꼭 주 부인에게 부탁하곤 했지요.

그런 주 부인에게는 소중한 일곱 친구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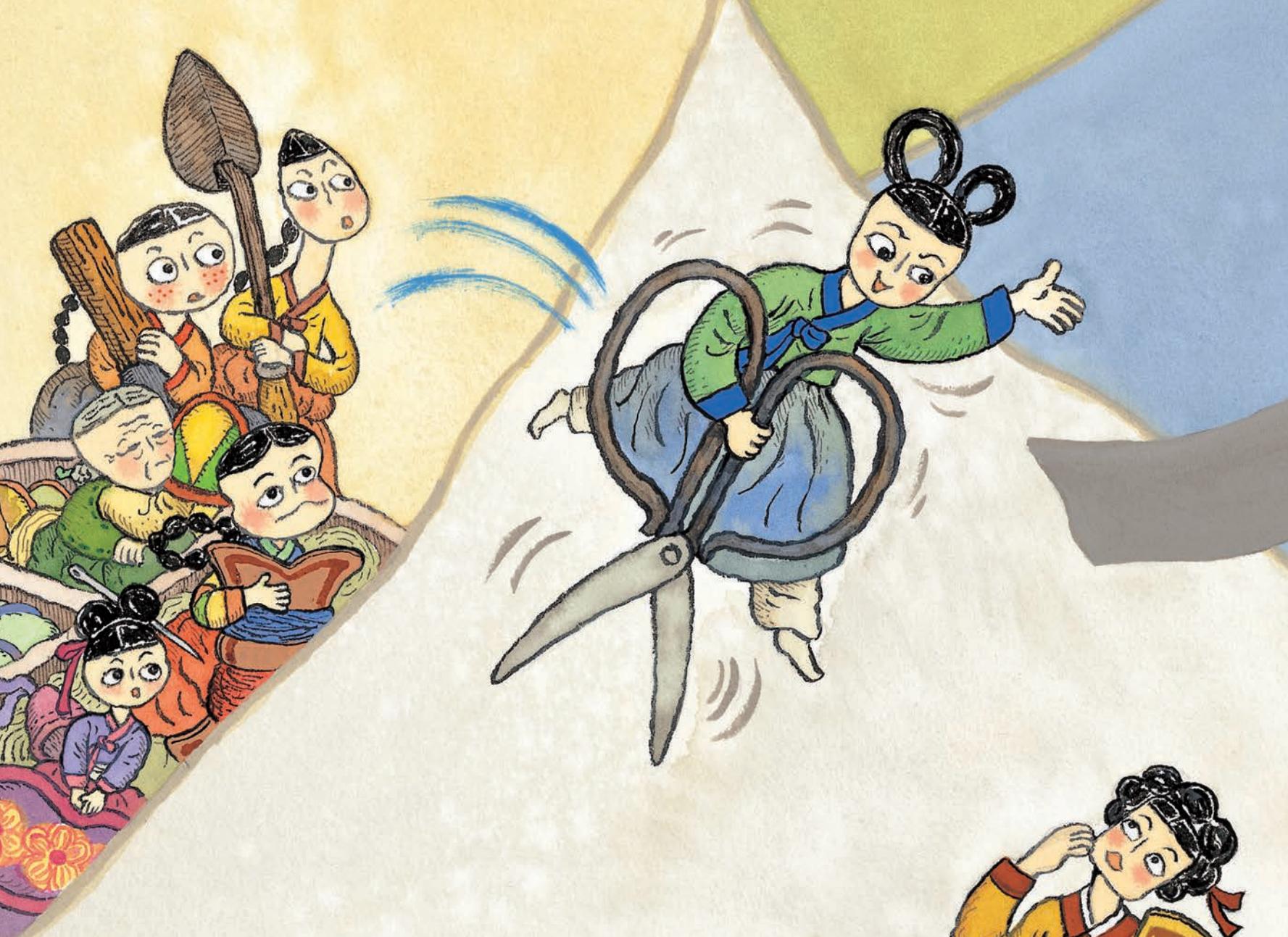
자 부인, 가위 각시, 바늘 각시, 청실홍실 각시  
그리고 인두 낭자, 다리미 낭자, 골무 할미였어요.



하루는 주 부인이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바느질 친구들이 모여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 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했어요.  
“다들 좀 들어 봐.  
아무리 곱고 귀한 \*비단이 있어도  
내 몸으로 길고 짧음을 척척 재 주지 않으면  
주 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자 부인의 말에 가위 각시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척척 재 주면 뭐 해요?

내가 짹둑 짹둑 잘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걸.

주 부인에게 누구 때문에 옷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바늘 각시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언니들, 정말 오늘 이상하네요.  
진주나 비단만 많으면 뭐 해요?  
**진주는 꿰어야 \*보배이고, 비단은 꿰매야 옷이지.**  
바느질은요, 바늘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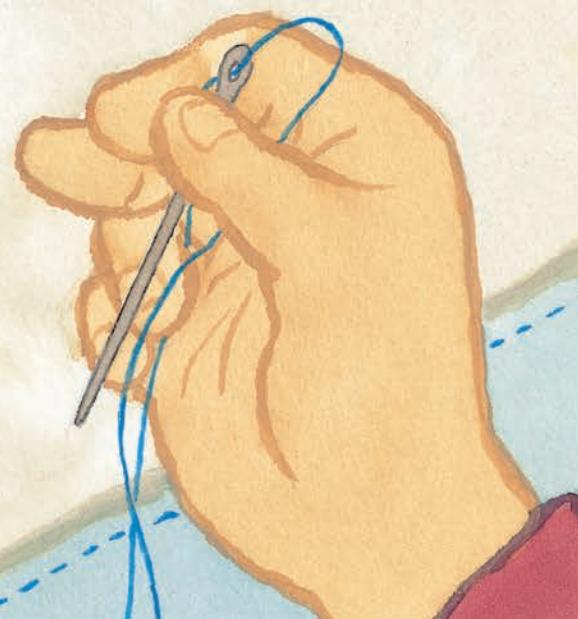
그때 청실홍실 각시는 \*실패에 몸을 기댄 채 소리쳤어요.

“바늘 동생, 잘난 척하지 마.

나 없이 혼자서 열심히 꿰매 봐라, 비단이 꿰매지나.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주 부인이 괜히 청실홍실을 소중히 다루는지 알아?”







가만히 듣고 있던 골무 할미가 피식 웃었어요.

“자네는 바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말이 참 많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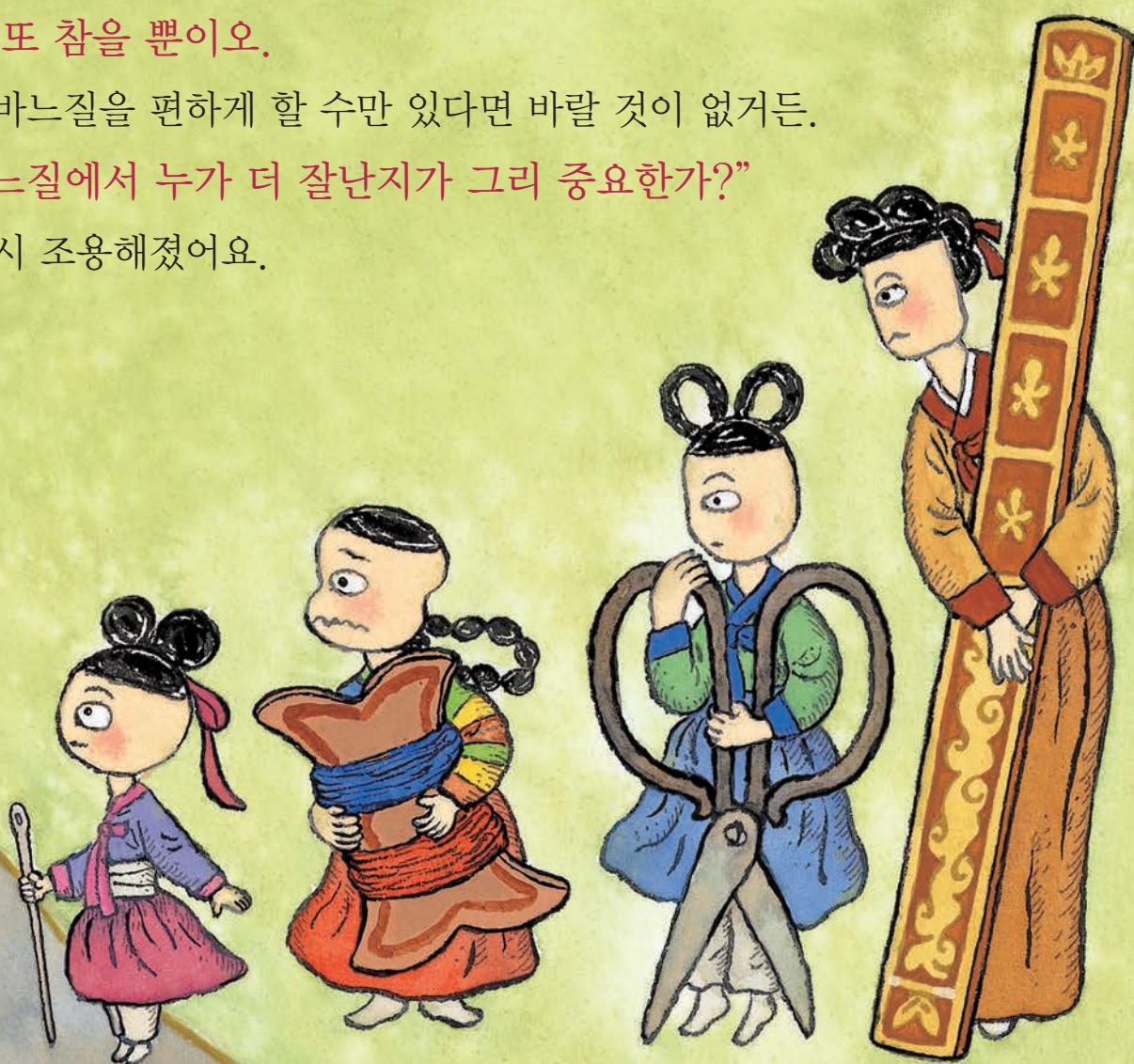
이 늙은이는 바늘 각시가 내 얼굴을 콕콕 찔러 대도

그저 참고 또 참을 뿐이오.

주 부인이 바느질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거든.

그런데 바느질에서 누가 더 잘난지가 그리 중요한가?”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금세 인두 낭자가 또 나서서 말했어요.

“모두 자랑들을 하는데, 뭐 나라고 없겠어요?

저고리 \*동정을 뺏뺏하게 다려 주고,

쭈글쭈글한 \*솔기를 잡아 주는 것도 나예요.

바느질이 \*들쑥날쑥해도 내가 지나가면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그러자 다리미 낭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거참, 내가 인두 언니보다 쓰임새가 더 많지요.

구깃구깃한 옷들, \*풀 먹여 둔 빨래들 모두

내가 한 번 지나가면 고운 옷들이 돼요.

주 부인이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완성하는 건 나라고요, 나!”



잠시 뒤, 주 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유, 잘난 척들 좀 그만해.

어떻게 자기만 잘난 줄 아니?”



“주 부인,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을 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쓸모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바느질 친구들은 할 말을 잊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주 부인은 베개를 탁탁 치고는 머리를 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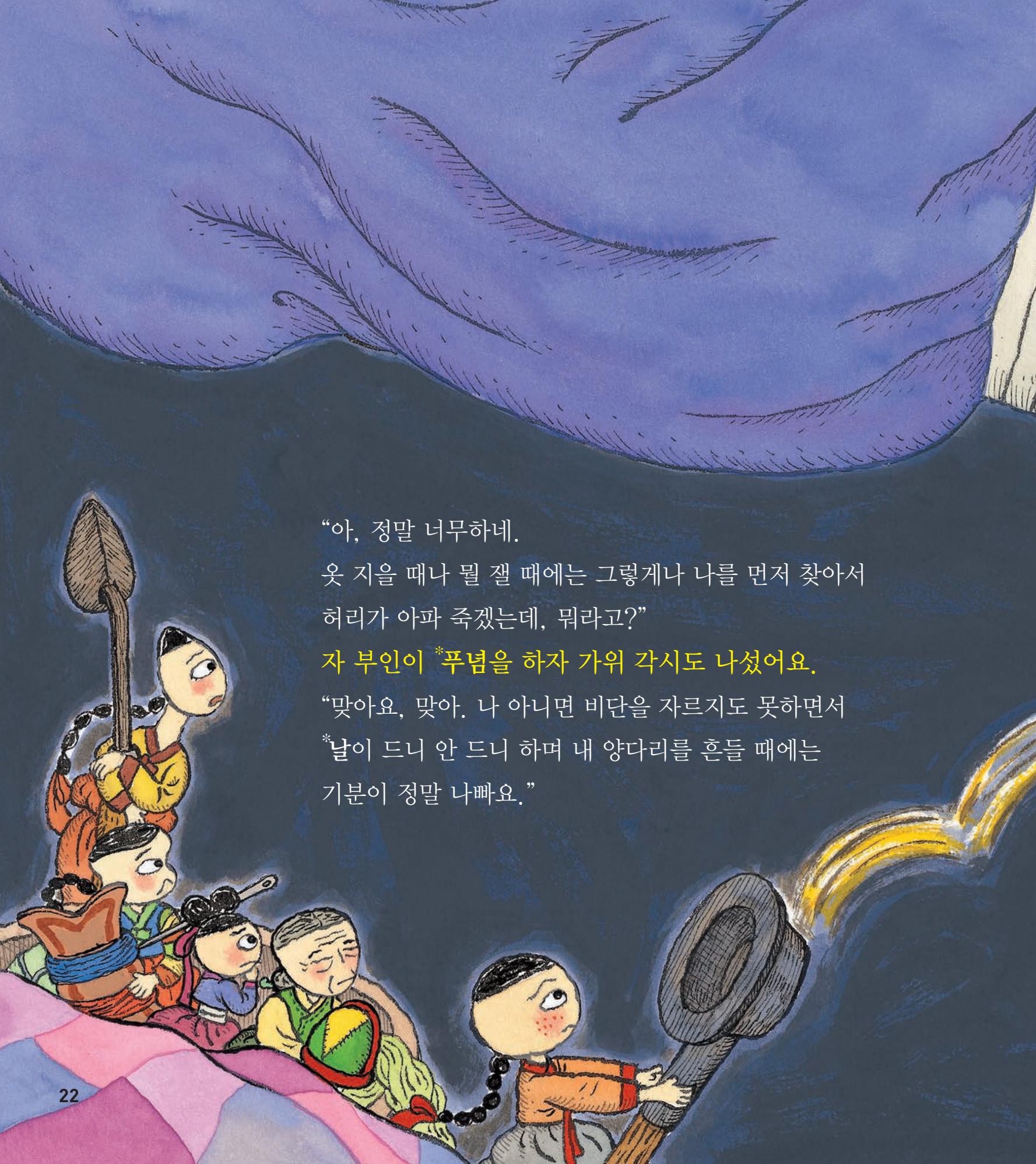
어느새 주 부인은 다시 잠이 들었지요.

주 부인의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stylized purple feather at the top, and in the lower left foreground, the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several figures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One figure, a woman, is holding a large black fan. Another figure, a man, is wearing a wide-brimmed hat and holding a long wooden shovel. The scene is set against a dark blue background.

“아, 정말 너무하네.

옷 지을 때나 뛸 짤 때에는 그렇게나 나를 먼저 찾아서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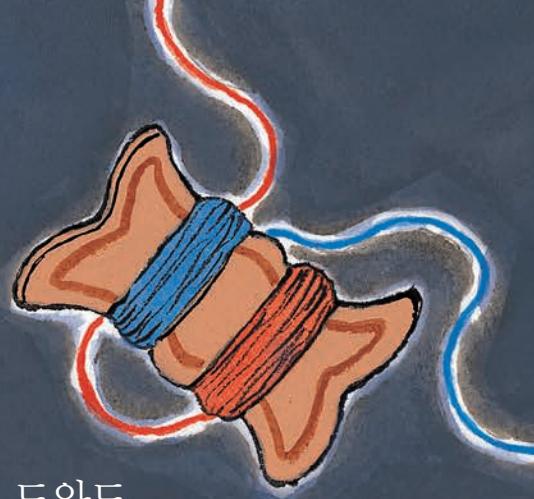
자 부인이 \*푸념을 하자 가위 각시도 나섰어요.

“맞아요, 맞아. 나 아니면 비단을 자르지도 못하면서  
\*날이 드니 안 드니 하며 내 양다리를 흔들 때에는  
기분이 정말 나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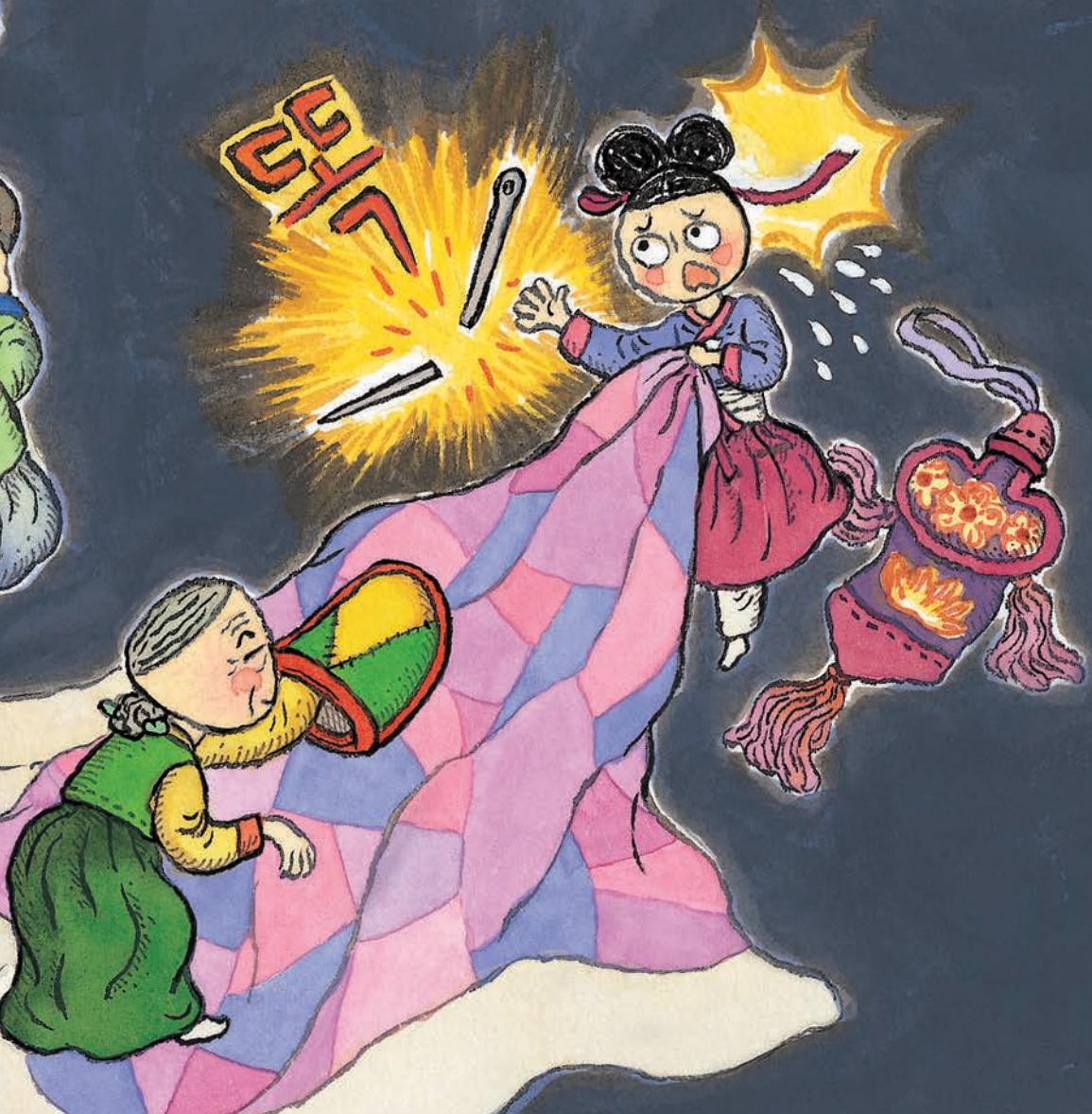




“나도 할 말이 많아요.



가느다란 허리로 바느질을 열심히 도와도



마음에 안 들면 허리를 똑 부리뜨리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손톱 밑을 찔러서 피라도 내야 \*후련하건만,

골무 할미가 다 막아 내니 답답해요.”





바늘 각시에 이어 인두 낭자, 다리미 낭자도

\*울분을 터뜨렸어요.

“나는 무슨 죄로 뜨거운 불로

얼굴을 지져 가며 일을 할까요?”

“나야말로, 내 몸을 마구 눌러 대니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니까요.”



치이이이



죽



죽





또 주 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너희들 지금 내 흉을 보고 있는 거니?”

그러자 골무 할미가 나서서 말했어요.

“주 부인, 화 풀어요.

주 부인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말한 게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골무 할미의 말을 들은 주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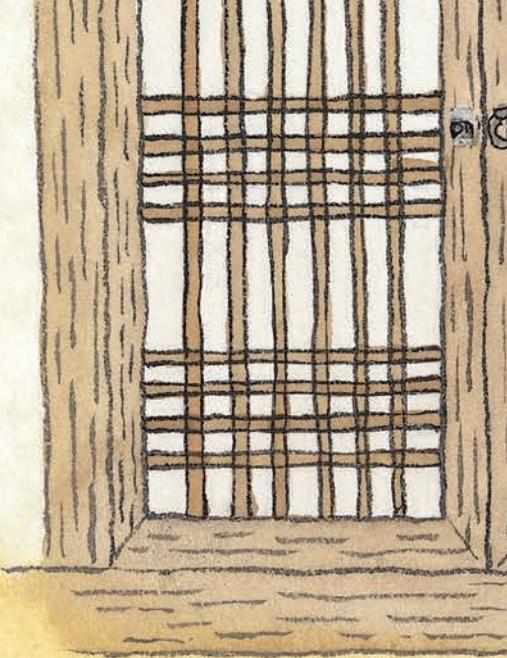
너희들이 하도 잘난 척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

너희들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고,

바느질할 때 꼭 필요하단다.”

그 뒤에도 주 부인은 변함없이 일곱 친구와 함께  
뚝딱뚝딱 예쁜 옷을 만들었어요.

바느질 친구들도 이제는 서로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 비단

명주실로 짠 반짝거리는 천으로, 가볍고 빛깔이 우아하며 촉감이 부드러워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며 비단실을 켜서 비단을 짰어요. 이렇게 비단 짜는 일이 일찍부터 발달했기에 삼국 시대 이전부터 삼국 시대에 걸쳐 비단과 비단 짜는 기술을 일본에 전해 줄 수 있었어요.



## 실패

바느질실을 감아 놓고 쓰는 기구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나뭇조각, 동물의 뼈 등에 실을 감아 놓고 쓰다가 차츰 실패의 형태와 재질이 다양해졌을 거라고 추측해요. 양반층 여인들은 화려한 무늬의 실패를 쓰고, 서민층 여인들은 투박하고 장식이 없는 실패를 썼다고 해요.



## 베개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베개는 형겁으로 길게 만들어 속에 왕겨나 메밀껍질 등을 넣고 봉한 다음, 흰색의 무명으로 겉을 싼 것이에요. 양쪽의 모는 둥글게 하든가 각지게 하여 짐장생 문양 등을 수놓았어요. 또, 오색을 맞춘 비단에 솜을 두어 누빈 베개, 잣 모양으로 천 조각을 접어서 수백 개씩 돌려서 만든 베개 등도 있었어요.





인성전래 요술향아리 「바느질 일곱 친구」에 담긴

# 바느질 이야기

예의를 중요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은 옷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갖춰 입는 것부터 예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옷을 짓는 데 필요한 바느질은 아름다운 행동, 말씨, 길쌈 등과 더불어 여인들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었어요. 여인들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해 나갔지요. 여인들이 어떤 바느질 도구들을 썼고, 그러한 바느질 도구들로 무슨 물건들을 만들었는지 알아보아요.





옛 여인들이 바느질을 소중히 여겼던 만큼  
바느질 도구들도 친숙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간직했어요. 여러 바느질  
도구 가운데 특히 바늘,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를 자신들의 일곱  
친구로 여겨 ‘규중 칠우’라고 불렀어요.

# 옛 여인들의 바느질 일곱 친구 나와라!

**인두** 버선코 모양이나 세모 모양의 쇠를 화롯불에 넣어  
달구어서 천의 구김살을 놀려 펴는 데 사용했어요.  
다리미보다 작고 가벼우며 끝이 예리해서 구석진 솔기까지  
다릴 수 있었고, 달군 상태에서 오랫동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지요.



**골무** 손가락에 끼어 바늘에 찔리는 것을 막아 주고  
힘을 주는 데 사용했어요. 주로 가죽이나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는데, 시집갈 때 수놓은 골무 백 개를  
반진고리에 넣어 가기도 했어요. 골무는 여인들의  
희생정신을 담은 바느질 도구이기도 해요.



**바늘** 인간이 만든 최초의 바늘은 어류의 뼈에  
구멍을 내어 만들었어요. 이불이나 옷에 따라 굵기와  
길이가 다른 바늘을 썼어요. 칠석날 밤 여인들은  
달빛 아래서 실을 훠었어요. 그중 단번에 실이  
꿰어진 바늘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큰일을 앞둔  
사람의 옷에 몰래 꽂아 주었어요. 그러면 운이 따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곧은 선을 긋는 데 쓰는 도구로 옛날부터 비단 등의 물건을 재는 데 썼어요.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자들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자를 부러뜨리면 삼 년 재수 없다.”라는 속담은 자를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뜻해요.

**실**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해서 음력 정월 첫 토끼날 청색으로 물들인 명주실을 팔에 걸거나 옷고름에 매달아 장수를 바랐어요. 실은 바느질뿐 아니라 악기 줄이나 손목의 맥을 짚는 도구로도 쓰였어요. ‘실에 펜 바늘 따라오듯’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 경우를 말하고,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은 늘 함께 다니는 사이를 말해요. 이처럼 실과 바늘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가위** 두 개의 날을 엇걸어서 옷감, 종이, 머리털 등을 자르는 기구예요. 옷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적인 가위가 쓰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경주 분황사에서 발굴된 신라 시대의 금동 가위가 가장 오래된 가위 유물이에요. 가위는 그 생김새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의 두 다리를 상징했어요.



**다리미**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는 데 썼어요. 인두보다 큰 크기로 몸체 위쪽에 숯불을 넣어 몸체를 달군 뒤에 사용했지요.

옛 여인들은 한 땀 한 땀 정성껏  
손바느질을 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그 물건들은 무척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지닌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어요.

## 옛 여인들의 손바느질 작품들 나와라!



**베갯모** 베갯모는 베개를 감싸는 천으로,  
옛 여인들은 베갯모에 수를 놓거나 색실로  
꾸몄어요. 특히 좋은 꿈을 꾸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양을  
중요시했어요. 부부의 화목을 바라서  
원양이나 봉황을 수놓기도 했어요.



**오방낭** 옛 여인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중  
오방낭은 복을 담는 주머니로, 다섯 가지 색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주머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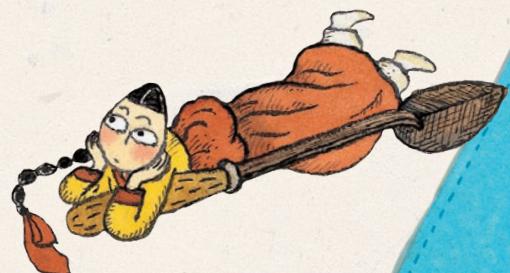
자수는 옛 여인들이 옷감이나 헝겊 따위에 여러 가지의 색실로 그림, 글자, 무늬 따위를 수놓는 일을 말해요. 자수는 옷에 아름다움을 더하려는 마음과 소망을 이루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바늘거레** 옛 여인들이 바늘을  
꽂아 두려고 헝겊 속에 솜이나  
머리카락을 넣어 만든 거예요.  
바늘을 속에 넣도록 만든 것도 있고,  
바늘을 꽂게 만든 것도 있지요.



**훈서지보** 혼례를 할 때 신랑  
집은 신부 집에 편지가 쓰인  
종이를 보자기에 싸서 보냈어요.  
그 보자기를 훈서지보라고 해요.  
옛 여인들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비단으로 훈서지보를 정성껏  
만들어 멋과 예를 표현했어요.



**조각보** 쓰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붙인 보자기예요. 옛 여인들의 소박한 멋과  
생활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자 부인, 가위 각시, 바늘 각시, 청실홍실 각시, 인두 낭자,  
다리미 낭자는 서로 자기 덕분에 주 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했어요. 골무 할미는 주 부인이 바느질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고, 바느질에서  
누가 더 잘난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골무 할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골무 할미는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여럿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꼭 누구 한 사람 덕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 똑같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느질 친구들이 서로 자기 덕분에 주 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했을 때 골무 할미는 다른 말을 했던 거예요.  
골무 할미의 깊은 뜻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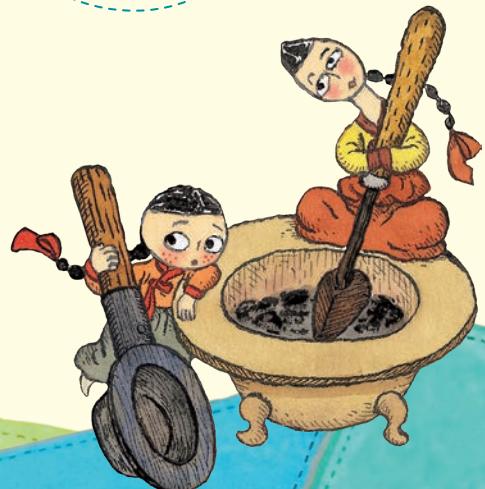


이야기 속 속담 사전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야.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 잘난 척을 하며 싸우다가 주 부인에게 크게 혼이 났지.  
주 부인에게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말까지 들었어. 그러다가  
골무 할미가 나서서 오해를 풀 뒤에야 일이 마무리되었지.



# 어떤 바느질 도구를 써야 할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바느질 도구들을 써 보세요.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

자는 옷의 길이를 재는 데 쓰이고,  
가위는 옷을 자르는 데 쓰여요.  
바늘과 실은 옷을 꿰매는 데 쓰이고,  
골무는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는 것을 막아 주는 데 쓰여요.  
인두와 다리미는 옷의 주름 등을 펴는 데 쓰이지요.  
이렇듯 바느질 도구들은 쓰임새가 달라요.  
바느질 도구들의 다양한 쓰임새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전래왕 명작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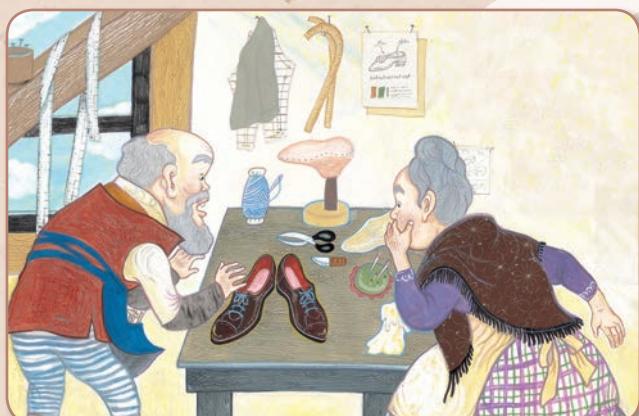


구두장이와  
꼬마 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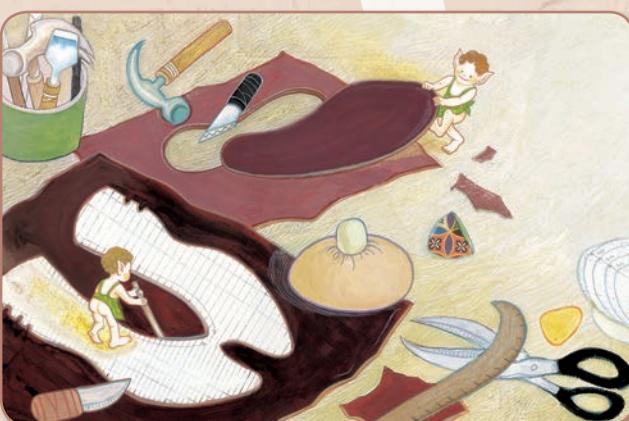
<바느질 일곱 친구>와 명작 동화 <구두장이와 꼬마 요정>은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구두장이와 꼬마 요정>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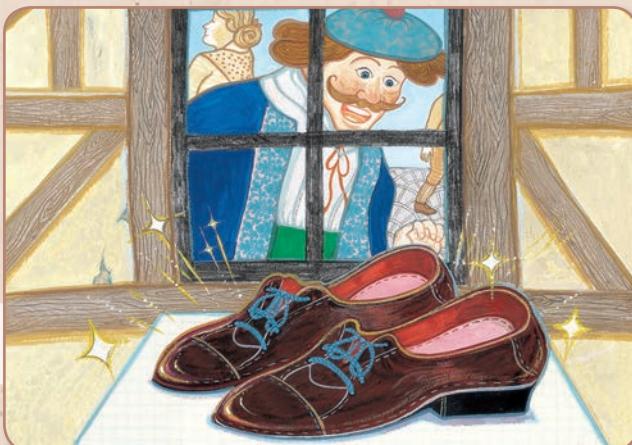
가난한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어 팔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 만들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  
구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꼬마 요정들이 만든 구두가 마음에 들었어요.



교과서에서 만나는  
〈바느질 일곱 친구〉

• 국어 3~4학년군 3-1 나 8. 의견이 있어요 220쪽~2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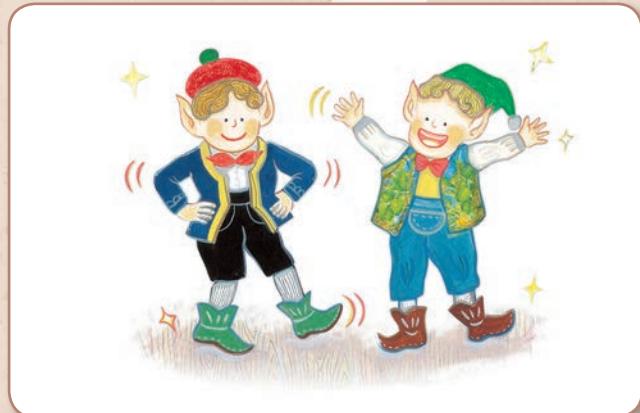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어 준 꼬마 요정들이  
고마워했어요.



밤이 되자 꼬마 요정들은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의 구두와 옷을  
만들었어요.



요정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물한 새 구두와  
옷이 마음에 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나는  
바느질 일곱 친구



#### \*반진고리

바늘, 실, 골무, 가위, 자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아 두는 그릇으로, ‘바느질고리’라고도 해요. 모양은 정사각형, 다각형, 직사각형 등이며, 화각이나 자개 또는 대나무, 종이 등으로 만들었어요.



표지 항균 처리 도서

SAYCODE II  
SAYPEN 오솔향아리  
AR1-OSML

